

미국, 중국산 면사에 세이프가드 조치

‘미국 정부가 중국산 면사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섬유 산업 정보지인 Emerging Textiles가 제기하는 의문이다. Emerging Textiles에 의하면, 올 1/4분기 중국산 면사의 수입량은 인도, 파키스탄 등 다른 국가로부터의 수입량만큼 크게 증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가격도 크게 하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미국 정부의 ‘카테고리 301’에 대한 쿼터 재부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중국에서 수입된 면사는 1/4분기 동안 120% 증가한 것이 세이프가드 조치의 주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동안에 파키스탄으로부터 수입된 면사는 154%나 증가하여, 실질적으로 미국 섬유 산업에 큰 피해를 주는 것은 중국 수입산이 아닌 파키스탄산이라고 Emerging Textiles는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중국산 수입 시장 점유율은 1/4분기 동안 전년 동기 대비 1.24% 증가한 3.13%에 그친 반면에 파키스탄산은 14.17% 증가한 29.66%로 대폭 증가했다.

중국의 면사 가격이 같은 기간에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고 ‘섬유조약이행위원회(CITA)’는 밝히고 있으나 이 기간 대부분 수입 면사의 가격이 하락한 것을 감안한다면, 중국산의 하락폭이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1/4분기 중 전체 평균 수입 가격의 하락 폭은 16.7%이며 이중 중국산은 26%로 평균보다 다소 높은 편이다. CITA의 세이프가드 조치로 인해 중국산 면사의 연간 수입량은 1,450t이 최대이며, 1~4월 수입 통계를 기준으로 전망해 볼 경우에 11월 중순까지 쿼터가 소진되지 않을 것으로 Emerging

Textiles은 전망하고 있다.

면사의 최대 미국 수출국인 파키스탄은 중국산 면사 세이프가드 조치를 환영하고 있다. 파키스탄 면사 업계에서는 증산을 위해 생산 시설 확충에 필요한 투자와 품질 향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 정부에서도 파키스탄 면사의 대미 수출 제한을 시도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WTO에 의해 무산된 바 있다.

중국 면사에 대한 쿼터 재부과로 인해 캐나다와 우리 나라 면 방직 업체들도 수혜를 볼 전망이다. 현재 미국의 면사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산 수입의 제한으로 여타 주요 수출국들의 수혜는 매우 당연한 결과이다. 캐나다와 한국에서 수출한 면사는 1/4분기 130%와 362% 각각 증가하였고, 수입 시장 점유율도 9%와 14%로 늘어났다. 인도산 대미 수출량도 5,000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